



전병룡 위경원한의원 원장

“삼라만상 아미타불 화신”

소문난 위장전문 한의원인 서울 위경원한의원. 10월 4일, 토요일에도 오후 5시까지 밀려드는 환자로 한의원은 분주했다. 홍원(弘願) 전병룡(全炳龍, 57) 원장은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스님들보다 치열한 정진으로 염불행자들의 사표가 되고 있는 선지식이다. 늘 자비로우면서도 빛이 나는 얼굴에 미소를 띠며 환자와 수행자를 대하는 홍원 거사는 1주일에 두 번은 삼각산 토굴에서 철야정진을 하고, 한 달에 두 번 3일 단식을 한다. 하루 1~2시간만 자고 오후불식과 채식하며 열심히 일하는 엄청난 정진력은 염불삼매를 통한 법희선열(法喜禪悅)을 누리기에 가능한 일이다.

1978년부터 3년간 태백산의 숨은 도인이었던 항성 스님(1985년 104세에 입적)을 만나 염불을 배운 그는 서암 스님을 20여년간 모시고 '무자 화두'를 참구하는 등 당대의 고승들을 친견하며 공부했다. 1989년 청화 스님을 만나 우발삼매가 된 그는 2002년 음력 11월 보름, 아미타불 3000일 기도를 병행하던 중 일찍 일찍 지난 날, 염불삼매와 공(空)을 체험했다.

2006년 12월, 정종회(淨宗會)를 창립해 염불 수행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 홍원 거사로부터 일상속의 염불수행법에

을 막는 방법입니다.”

-바쁜 일상속에서는 어떻게 염불합니까.
“일상속의 염불이란 생활 가운데서도 부처님을 생각하고 잊지 않는 것입니다. 설혹 잠깐 잊더라도 다시 염불하면 됩니다. 내 마음의 법신불을 알게 되면 염불심이 안 끊어지며, 저절로 계정해 3회가 구족되고 6바라 밀이 뛰어옵니다.”

-재가자들이 계정해 3화를 갖추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요.

“먼저 계가 이뤄져야 정, 해가 이뤄집니다. 계정해가 원만하지 않으면 집대로 삼매는 이뤄지지 않아요. 수행이 깊어지면 육식과 음주는 물론이요 식음유 조차도 청정한 세포의 불성 발현에 장애가 됨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이 때부터는 계를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지키게 됩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육진(六塵) 경계를 끊어야 합니다. 악업이

지구촌이 금융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 등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역시 IMF관리체제 환난이후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의 심성이 메달라 사회적, 종교적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치성하는 번뇌·망상을 이기지 못해 괴로워하다 우울증에 빠지거나 자살하는 사람들도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말법(末法)시대에 더욱 필요한 것이 바로 수행이다. 수행은 희로애락의 세간사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 서 삶의 주인이 되어 깨어있는 삶을 사는 방법이다. 삼계에 살면서도 삼계를 벗어나 대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생활속 수행의 달인들로부터 들어본다.

박영재 서경대 물리학과 교수

“재가자 수행은 본업 전념”

“재가자의 수행은 근무시간에 화두를 들거나 아무 때고 참선삼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본업에 100% 전념하는 것입니다.”

서경대 물리학과 박영재(53) 교수는 SCI 등재 국외학술지에 142편의 논문을 게재하고 13명의 박사를 양성한 한국 물리학회 거목이다. 재가수행단체 '선도회(禪道會)' 지도법사를 맡아 11명의 법사도 배출했다. 한 사람이 평생해도 다 못할 업적을 이뤘다는 주변의 평가에 박 교수는 “모두 선정력에서 나온 것”이라며 참선 수행의 힘을 강조했다. 그는 교수와 법사를 오가며 30여 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잠에서 깨어나 한 시간, 잠 들기 전 한 시간 수식관(數息觀)으로 산란한 마음을 잡고 화두를 든다.

“참선을 마치는 5분은 꼭 하루 일과를 계획·정리합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지혜가 생기고 정신집중 효과로 매사에 100% 매진



접했다. 이후 <숫타니파>는 그를 진정한 간화선의 세계로 이끌어준 첫 경전이 됐다. 박 교수는 여러 불서를 섭렵하고 서경대 불교학생회 '혜명회(慧命會)'에서 활동하며 '선도회' 종달(宗達) 이희익(李喜益, 1905~1990) 노사와 인연을 맺었다. 박 교수는 종달 노사 입적 후 스승의 유지를 이어 현재까지 선도회 제2대 법사로 간화선 수행과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사회생활 하는 재가수행자는 1년 정도는 선지식의 지도를 받아 수행의 기틀을 잡아야 합니다. 수식관 수행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면 입실집경, 이메일 문답 등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누구나 불조(佛祖)가 될 수 있습니다.”

박 교수가 말하는 수행은 어떤 것일까? 그는 “수행은 주어진 상황에서 주인공이 돼 분별심을 버리고 더불어 사는 깨어 있는 삶 자체”라 말했다.

박 교수가 가르치는 서경대 '참선' 과목은 10년 장수 과목이다. 취업난 등으로 학생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극에 달한 때 '웰빙수업'으로 호응이 크다. 박 교수는 “현재, 미래의 인생지도 그리기로 수업을 시작한다”며 “지도를 갖고 있어도 자신의 현 위치를 알지 못하면 목적지를 찾을 수 없듯 참선은 살아가는

치열한 정진 염불행자들의 사표 내안 법신불 알면 염불심 이어져

대해 들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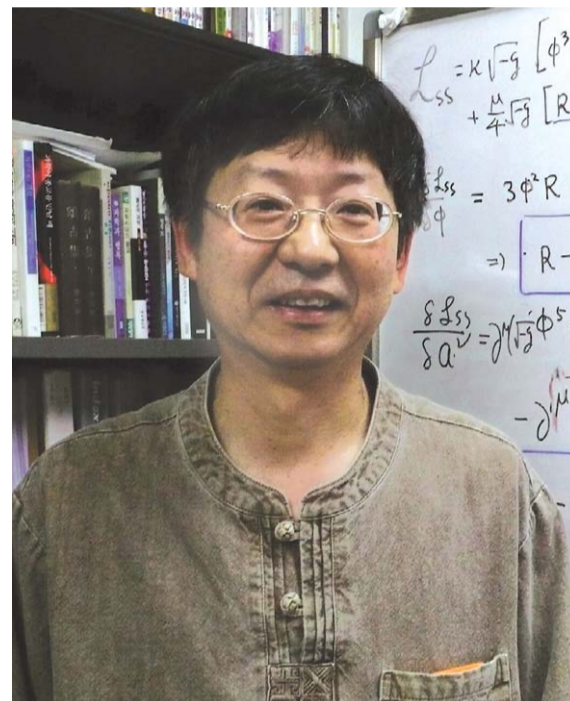
-현대인들에게 염불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염불은 번뇌속에서도 공덕이 있고 업장소멸이 되는 수행입니다. 염불을 통해 일념-삼매로 들어가고, 계정해 삼학이 저절로 갖춰지게 되죠. 몸과 마음이 맑아지고 악연이 물러가고 선연이 찾아옵니다. 나아가 미혹에 빠져 오욕락에 허덕이던 사람이 누구의 칭찬이나 비방에도 상관없이 일체를 평등하게 보고 우주와 더불어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염불은 서방정토에 왕생하는 길인 동시에 현실에서 극락을 체험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가장 빨리 성불하는 길이 염불입니다.”

-초보자가 염불할 때의 자세를 말씀해주세요.
“<법화경> <화엄경> <정토삼부경> 등 대승경전을 깊이 믿고 청정하게 계율을 지키면서 '나무아미타불'을 진여자성(眞如自性)에 마음을 두고 염하세요. 처음에는 정진이 서야 바로 공부 가능합니다. 사성제와 12연기만 제대로 알아도 인과를 알기에 죄업을 짓지 않아요. 진정한 참회를 통해 보리심을 발해야만 죄업을 풀고 성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염불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염불할 때 초심자는 '나무'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간절한 갈망심(渴仰心)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수행이 깊어져 염불삼매에 들러는 수행자는 '나무'를 빼고 '아미타불'만 빠르게 외워 번뇌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수행자는 빈잡한 세속인연을 정리하고 혼자 정진하는 시간을 늘여야 합니다. 염불할 때는 세수라도 하고 심신을 청정히 한 후 조명이 밝고 청정한 곳에서 향을 피우는 것이 마장(魔障)



쌓이면 유유상종의 업연이 가속도가 붙어 쌓입니다.”
-염불을 오래 하면 어떤 체험을 하게 됩니까.
“마음 자체가 허공 법계와 같아져 지혜롭고 자비스러워집니다. 인체가 우주 허공법계와 공명 돼 무명을 깨뜨리고 밝아집니다. 깊은 삼매속에서 화엄·법华的 세계를 실제로 보게 되고 불보전지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침내 나라는 게 진실로 없음을 느끼게 되고, 공(空)·무상(無相)·무원삼매(無願三昧)를 얻게 되죠. 철저한 공에 들어가 삼신(法身·보신·화신)이 일불임을 알게 됩니다. 모든 부처님과 삼라만상, 우리 자신이 아미타불의 화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할 수 있습니다.” 선 수련 10년 후부터는 분별 망상이 사라졌다는 그는 수행과 생활이 둘이 아니다. 박 교수는 연구 중 문제가 생기면 화두로 삼고 아무 곳에서나 두 다리를 틀고 앉아 심호흡을 하고 화두를 참구한다.
박 교수는 유복한 집안의 2대 독자로 태어나 어린 시절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어머니와 성당을 다녔다. 그가 불교와 인연 맺은 것은 서경대에 입학하면서부터다. 이공대학을 수석으로 입학한 1년 후 “나란 무엇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학문은 무엇인가”라는 풀리지 않는 의문들의 타파가 절실했다. 해답을 찾고자 서점의 모든 책을 섭렵해갈 즈음 우연히 <숫타니파>를

선도회 지도법사, 법사 11명 배출 언제나 주인공 되는 삶이 '수행'

순간순간 현 위치를 확인해 가지 않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준 다”고 설명했다.

요즘 박 교수는 높은 수행 법력으로 소문난 인기 강사가 됐다. 최근 동국대 불교대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전민족을 위한 생활참선'을 강연한 것을 비롯해 2007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에서 '명상과 과학' 강의를 진행해 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자타불이(自他不二), 율탁동시(喲喲同時), 수처작주(隨處作主) 등 경전에 나오는 수많은 불교의 가르침이 최근 경제 현실을 해결하는 키워드라는 설명이다. “과학은 체득의 종교인 불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물리학자들은 우주 역사 150억년 동안 하나의 조건이라도 달랐다면 오늘날 인류가 존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백천만겁난조우(百千萬劫難遭)'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숨 쉬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신비롭고 소중한 존재임을 온몸으로 체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1년 365일 좋은 날이 된다”고 말하는 그에게서 자상한 아버지와 같은 따뜻함이 느껴진다.

“상인은 장사를 잘해 돈을 버는 것이 선(禪)입니다. 농부는 좋은 작물을 키우는 것이 선이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선이지요.”

일본 세키 부꾸오 선사의 말처럼 화두나 공안, 참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능력을 자유자재로 나타내면서 100% 본업에 몰두하도록 하는 수단이 선(禪)이라는 게 박 교수의 수행관이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불자 정보

701호 | TEL 02) 2004-8219(直) 732-1522 FAX 02) 737-0696

포교원 (급)안내

- 위치: 천안시 쌍용1동 대로변 전철역 5분거리 ● 평수: 40평
- 상가: 4층건물중 2층전체
- 구조: 방3개 법당 시설완비 즉시법회
-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증가능)

010-2259-6787

사찰 안내

- 경남 의령군 부림면(웅암사)국도에서100m 대구에서 1시간, 진주에서 1시간, 창녕에서 25분, 부산에서 1시간 20분
- 대지 약 400평(현시가 평당 30만원)
- 건물: 법당(15평) 목조기와 4불상 요사채 33평 기와스라브 신축 (평당300만원 소요)
- 석축 옹벽조경 공사 5천만원 소요
- 가액: 2억 3천만원 급매 특별할인 10% (총 2억 2천만원낼수 있음)

011-9329-4241(법사)

포교당 (급)안내

- 위치: 대구시 신천지하철역
- 건평 4층건물중 3층(45평)
- 보증금 5백만원 월40만원 시설비별도 3천만원
- 시설완벽,비품 일체 양도

010-8676-7107

포교당 (급)안내

- 위치: 대구시 남구
- 4층건물중 2층(42평)
- 법당 35평, 비품일체양도
- 뽕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 가능함. 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저렴하게 양도함
- 보증금 500만원 / 월 45만원 시설비별도 답사후결정

010-7496-3312
010-5013-2526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시 안지랑이4거리 안지랑지하철1분거리
- 시내 버스정류장입구,앞산아래
- 평수: 약40평,3층 중2층전체
- 구조: 법당,공양간,방2,세면장
- 보증금 1천만원,월 50만원
- 시설비 500만원

011-9355-3778

지리산 사찰 안내

- 위치: 경남 산청 시천 중대리
- 대지 374평(실평수 약 600평)
- 법당30평, 요사30평,산신각2.5평
- 차실, 텃밭 760평 총 2800평
- 뒷산 흥송, 절영 폭포
- 가액: 2억8천만원(대출가능)

011-9393-4965

도심포교(급)안내

- 위치: 서울 망우동 동네5거리
- 부자명당터
- 약 50평, 2층
- 시설완비. 건물주 불자
- 3천만원, 월70만원
- 신축불사로 매우 저렴 급 양도

017-265-9367

사찰 안내

- 위치: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서해안 고속도로 발안IC 부근
- 대지 220평
- 건물 1층 요사채 47평 건물 2층 법당 23평, 산신당 4평 그외 차고 15평, 심야전기
- 가액: 5억

011-9114-9935

탈 종 공 고

● 법 명 : 보 덕
● 속 명 : 김태덕

본인은 귀중단의 중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한국불교 여래종 총무원장 법하

“하기 책자는 스님들께만 보내드리는 책자입니다”

[무료]

※ 본 책자는 현재 사찰을 운영하시는 스님들을 통해서 스님의 신도들에게 무료로 배포되는 책자입니다. 먼저, 스님께 1권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생전 예수재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 법사

책자 안내

- ① 생전예수재란 무엇인가?
- ② 생전예수재를 지내면 얻게되는 공덕은 무엇인가?
- ③ 생전예수재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져 왔는가?
- ④ 현재의 생전예수재 의식과 절차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 ⑤ 새로운 차원의 생전예수재 의식 그 방법과 방편은 무엇인가?
- ⑥ 새로운 예수재 그 의식과 절차에 대한 설명.
- ⑦ 새로운 예수재는 언제 어떠한 경우에 지내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⑧ 생전예수재 49재 기도식처 조성의의.
- ⑨ 부록 : 십이생상수(十二生相圖) 백팔대참회문.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 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흥 3리 704-1(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 Fax 031)768-8413